

'20년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 스크립트

(2020. 7. 21 / IR그룹)

1. 1PAGE. 연결 손익 – 연결손익 종합

안녕하십니까, 포스코인터내셔널 국제금융실장입니다.

당사 2020년 1분기 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적 자료 1페이지입니다.

당사는 2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5조 2,520억원, 영업이익 1,344억원, 순이익 90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글로벌 수요산업 위축에 매출액은 감소하였으나 견조한 가스 판매 및 식량사업 호조세를 바탕으로 영업이익 감소폭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무역부문은 코로나19여파로 인한 화학, 비철, 자동차부품 사업의 부진에도 식량사업 확대, 경영비용 절감 및 운전자본 관리 강화 등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비교적 양호한 이익을 달성하였으며,

가스전은 1분기 급락했던 유가 영향으로 판매가격은 소폭 하락하였으나 **2분기 일평균 5.5억 입방피트를 판매**하며 견조한 이익을 거두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전분기 일부 투자자산에서 급격한 현지 통화 절하로 발생했던 차입금 환평가 손실이 2분기에 현지화 회복에 따라 상당 부분 환입되며 전분기 대비 26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 및 이익은 전분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심각한 경기 위축 국면에서 거둔 성과라는 점을 감안하면 선전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2PAGE. 요약 손익계산서

다음은 **요약 손익계산서**입니다.

실적 자료 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이익 1,344억원은 트레이딩 등 457억원, 가스전 887억원 으로 구성되고,

**트레이딩 등 457억원은 본사 Trading 375억원
자회사 82억원**으로 구분됩니다.

식량사업은 산업 자체의 낮은 수요 변동성과 더불어 당사의 트레이딩 역량을 바탕으로 호조세를 보였고, 철강은 자동차강판 사업실의 부진에도 에너지강재 등 고마진 제품 거래 판매 확대를 바탕으로 양호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자회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미얀마호텔 등 일부 투자법인의 성과가 좋지 못하였지만 인도네시아 팜오일 법인이 판매량 증가로 호조세를 보이며 어려운 국면에서도 견조한 실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미얀마 가스전은 계절적 비수기인 하절기 돌입에도 하방 경직적인 계약 구조와 높은 미얀마 가스 수요를 바탕으로 일산 5억 입방피트 이상의 견조한 판매를 달성하며 **887억원**의 이익을 거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업외비용 설명 후에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외손익에 대해 말씀 드리면,

금융손익은 108억원 이익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순이자비용 221억원, 환관련이익 329억원**입니다.

3. 2PAGE. 요약 손익계산서

순이자비용은 221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는 하반기 만기도래 차입금 2,100억원에 대해 상환 재원 마련 및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5월에 회사채 3,000억원을 발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자비용이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7월에 만기도래한 회사채 1,300억원을 상환하였으며 LIBOR금리가 낮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어 하반기 이자비용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관련이익은 329억원으로,

1분기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신흥국 통화 가치 급락으로 인니 팜사업과 우크라이나 곡물터미널 사업에서 **411억원의 외화 차입금 환평가손실**이 발생하였으나, 글로벌 국제공조 영향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은 상당 부분 진정되었고, 이에 신흥국 환율 역시 상당 부분 정상화 됨에 따라 2분기에는 이익으로 환입되었습니다.

관계기업손익은 미얀마 육상 가스관에서 110억원의 이익을 기록하며 계속된 암바토비 프로젝트의 부진에도 **25억원의 이익**을 달성하였고, 캐나다 과니카 동광산 프로젝트에서는 향후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에 **64억원의 자산 손상**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수익성지표를 설명드리면

ROE는 순이익 개선으로 10.4%, EBITDA는 4,399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연환산시 약 8,800억원 수준이며, 사상 최대치였던 '19년의 8,916억원에 비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3PAGE. 요약 재무상태표

다음은 3페이지 요약 재무상태표입니다.

'20년 2분기말 기준 총자산은 9조 1,559억원이며,
부채는 6조 13억원,
자본은 3조 1,546억원 입니다.

특히 저금리 환경에서 현금시재 확보 등 경영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회사채발행을 확대하여

차입금이 전년대비 4,557억원 증가하였으나,

현금중시 경영활동 강화로 운전자본이 개선되어

부채비율은 전년대비 3.7%포인트 감소한 190.2%를 기록하였습니다.

순차입금의존도도 29.5%로 전년말비 2.6%pt 감소하였으며,

Debt to EBITDA도 4.1배로 개선되는 등

재무구조는 계속해서 견실해지고 있습니다.

5. 4PAGE. 사업부별 실적 및 전망

다음은 주요 사업부별 2분기 실적 및 전망입니다.

철강사업은 글로벌 고객사 섀다운 및 철강사 감산 영향에도 불구하고, 미국, 서남아 등 열연 제품 신규시장 개척, 고마진 제품인 에너지강재 유럽향 판매 확대 등으로 다소 선방한 **판매량 661만톤, 매출 2.5조원, 영업이익 24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차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20년 7월 1일부로 완료된 북미, 호주, 러시아 지역의 포스코 해외마케팅 통합에 따른 구조적 물량 확대로 하반기는 개선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너지인프라본부는 미얀마 가스전의 견조한 이익을 바탕으로 **매출 3,391억원, 영업이익 870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LNG 판매는 2분기 물량 일부가 하반기로 이연됨에 따라 하반기는 상반기보다는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얀마 가스전은 중국의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미얀마도 계속해서 견조한 수요를 보이며 하절기임에도 계약 물량 이상의 판매량을 유지중입니다. 저유가 지속으로 가스전 판가 하락이 예상되고 있으나 동절기 판매물량 확대 및 운영비용 절감을 통해 이익 하락폭을 최소화해 나갈 것입니다.

6. 5PAGE. 사업부별 실적 및 전망

식량소재본부는 코로나發 수요부진, 저유가 지속으로

화학, 비철, 자동차부품 등 산업재/소재 트레이딩 환경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비, 전년 동기비 하락한 **1.9조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반면 영업이익은 중국, 동남아향 대두, 옥수수 판매 확대 등
식량 트레이딩 호조로 전분기와 유사한 **124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2분기에는 식량사업에서 트레이딩 및 투자사업 합산
100억원 이상의 분기 영업이익을 달성하였고

이는 회사가 식량 사업을 통해 추구하던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이라는 지향점에 한 발 다가선 것 같아 고무적입니다.

물론 아직 사업의 성장세가 본격화 되었다고 말하기에는
다소 이른 시점이고 외부 불확실성 또한 높아

3분기 식량사업의 이익은 2분기에 못 미칠 가능성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터미널 본격 가동과 연계 트레이딩 확대로
수익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회사 관련해서는 무역법인에서 식량거래 증가로

전분기 비 이익이 개선되었으며,

투자법인에서는 미얀마 호텔 등 일부 법인이 부진하였으나
인니팜 법인이 판매량 증가로 50억원의 분기이익을 기록하며
총 **82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發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지만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신규 자산 활용 확대를 통해

이익의 하방 경직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 6PAGE. 3대 성장사업 시장 환경 및 당사 성과

다음은 6페이지의 **3대 성장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외부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식량, E&P, LNG 3대 성장사업을 선정하고 육성 중이며 이에 대해 시장의 이해를 돕고자 사업 선정 배경과 그 간의 성과를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량은 소수 메이저 중심의 과점시장임에도 차별화 전략을 바탕으로 후발 주자의 진입이 활발한 시장입니다.

당사가 식량 사업을 선정한 배경은

인구 증가, 경제 발전으로 연평균 교역량 6.1% 신장 등

시장 자체의 성장성이 기대되고

생산지, 소비지의 구조적 불균형으로 향후 **물동량이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식량안보라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내수 시장을 Captive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당사는 그동안 **글로벌 상하류 밸류체인 구축**으로 안정적 조달-판매 체계를 구축하고자 **트레이딩 물량 확대**와 전략자산 투자를 실행하였습니다.

이에 '15년 84만톤에 불과했던 곡물 취급량은 작년 545만톤을 달성하며 **5년만에 6.5배 이상 확대**하였고,

올해에는 600만톤 이상의 취급고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비약적인 물량 확대와 더불어 '18년에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었고, 현재 인니팜, 미얀마 RPC, 우크라이나에 곡물터미널까지

3개의 투자자산을 확보하며 사업의 외형확대와 내실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8. 6PAGE. 3대 성장사업 시장 환경 및 당사 성과

E&P는 글로벌 저탄소 정책 확대로 기존 화석연료대비 청정에너지원인 **천연가스 수요 확대가 예상되며**

당사는 상류 천연가스자산의 확보를 바탕으로 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 미얀마 가스전에서 견조한 판매를 통해 연간 3천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으며,

올 2월에는 미얀마 가스전 A-3구조에서 신규 가스층을 발견하며 당사의 E&P 역량과 광구의 유망성이 다시 한 번 재조명 받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탐사와 개발 자산의 지분참여를 통해 확보 매장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LNG는 역시 **가스 수요 증대**라는 환경적 요인과 이에 대응한 인프라 확대로 **LNG 수요 및 물동량은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당사는 대형 수요가 및 포스코 그룹사 Captive 물량 중심으로 트레이딩을 확대하며 재작년 47만톤이었던 판매량은 작년 159만톤으로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올해에는 200만톤을 상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그룹사와 협업을 통해 상하류 밸류체인을 확대하며 판매량과 이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4차산업으로 이행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의 3대 성장사업은 저탄소 에너지원 확보, 식량 수요 대응 등 산업의 중요성과 성장성을 고려할 때 미래산업의 기반산업으로서 전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회사의 차별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분기 실적발표 프리젠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